

CONTENTS

About K-ART

08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설립목적 및 비전 / 핵심 활동

09

업무 네트워크

Artist Support

10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12

인도 첸나이 챔버 비엔날레

14

인코 센터 갤러리 전시

16

첸나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미술 바자展

18

한국 베트남 미술 교류전
with POSCO E&C

20

기타 주요 전시 및 작가지원사업
K&K멤버십 갤러리
지난 기획전시 및 아트페어

동북아시아전 / 동북아시아 아트페어(NAAF) / 중국 닝보미술관 초대전

한중 당대 미술가 초대전 /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 / 부산국제아트페어 선정작가 초대 개인전

Student Support

24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26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

28

청소년 국제미술교육연수

한일미술교육연수 in SAGA / 일본대학미술기초연수 / 한중미술교육연수

About K-ART

09

Corporatio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Mission Statement / Core Activities

09

Work Plan

Artist Support

10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BIAF)

12

Chennai Chamber Biennale

15

An exhibition of paintings by
5 acclaimed Korean artists
at InKo Centre

17

Charity Bazaar Art Exhibition for
Chennai Flood Relief

19

Korea-Vietnam Art Exchange
Exhibition with POSCO E&C

20

Other Important Exhibition and Artist Supports

K&K Membership Gallery

Previous Special Exhibitions and Art Fairs

Northeast Asia Exhibition / Northeast Asia Art Fair (NAAF) / China Ningbo Museum of Art Invitational Exhibition

Sugye China-Korea Interactive Contemporary Artist Exhibition / Korea Contemporary Spectrum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Designated Artist Invitational Private Exhibition

Student Support

24

International Teenager Design & Art Contest

26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28

International Juvenile Art Training

Korea-Japan art training sessions in SAGA / Japanese College Art Education Training / Korea-China Art Education Training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를 한 뜻으로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국제문화예술교류는 해외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예술적 안목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단발성의 이벤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나, K-ART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미술교류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컬렉터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인이 다수인 저희 컬렉터들과 미술교류에서 시작된 인연을 바탕으로 해외 경제인들의 국내투자과 국내 경제인의 국외투자에 있어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호간의 이해를 원할하게 조정하며 국제적 협력관계를 민간 영역에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K-ART 국제교류협회는 예술·문화교류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세계에 한국미술을 알리고, 합리적인 미술 거래의 장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부터 실력 있는 신인작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자생적 선순환구조 확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미술을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초대해 일반관객들에게 고급예술의 향유기회를 넓히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가능성 있는 미술학도들에게 그 재능을 펼칠 길을 여는 등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아트는 산업'이라는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저희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변함없이 실현하며,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를 한 뜻으로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허숙

Hereby I would like to show my sincere gratitude for everyone who supported and cheered us as always.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has been making the best effort for the only and the most important goal - the expansion of art base of Korean public, for last 30 years.

K-ART was able to grow with the credits from main collectors of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Vietnam, Japan, etc through decades of exchange business while other international exchanges happened in Korea mostly has remained as a one-time event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for foreign art market and failure in reaching to international level. Also, K-ART has been work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civil area as managing mutual benefit and friendly environ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nd the vice versa based on close relationship with our collectors who are mostly business and industry leaders.

K-ART will continue to promote Korean art to global art market as well as leading the sustainable art activities both for senior and junior artist at reasonable art market. Our effort shall be extended to offering chances for general audience to enjoy art of high quality and for art students to experience possibilities, widening the art welfare in public sector including the profit donation as a part of social contribution.

With our clear motive of "Art is Business", will carry on our footstep for development of Korean art same as we have done so far. Hereby I would like to show my sincere gratitude for everyone who supported and cheered us as always.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hairperson

Heo Sook

ABOUT K-ART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설립 목적 및 비전

정부주도 하의 문화교류협력 활동부터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미술교류전과 학생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예술·문화교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K-ART 국제교류협회는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적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비영리 단체를 설립,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2001년 9월 '한국의 미술 K-ART' 로 시작하여 2007년 5월 17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래, 현역작가들을 위한 국내외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미술교류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생교류사업 및 학생미술공모전, 미술기초과정수업을 실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며 우리 예술·문화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지원사업으로는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ndia Chennai Chamber Biennale, Asian Art Academy 정회원 국제위상전, 해외 개인전 및 단체전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학생지원 사업으로는 한일미술연수강좌와 같은 연수과정과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공모전,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ork Pla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 / 미술 문화의 대중화 / 한국 미술의 국제화, 세계화
Expansion of art population / Popularization of art culture /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art

기획

다양한 국내외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각종 해외전과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해 작가들의 미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Planning

Support the artist's sustainable art activities th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trainings based on K-ART's various experiences.

교류

인도,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로 한국 미술의 세계화와 앞장서며, 우리 미술학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Exchange

Lead the worldwide step of Korean art through large number of exchanges with India, Japan, Vietnam, China, US, etc and introduce the global flow to Korean art students.

홍보

K-ART 국제교류협회 문화교류 행사를 각국의 언론사와 다양한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히 홍보해 한국 미술을 비롯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Promotion

Announce K-ART's cultural exchange events to each country's press and civil diplomatic channels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nd art to overseas countries.

분석

작가들의 데이터와 미술학도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작가들과 미술학도들이 충분히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연구합니다.

Analysis

Research the better approach to maximize artists and art student's talent through their data and its analysis.

Corporatio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Mission Statement

While demand for human exchange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international exchange drive by the government and pure ex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art exchange exhibitions and cultural exchange of students, there is lack of organizations to play professional role in relation to such exchanges. We aim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by establishing non-profit volunteer organizations which can function as windows for improvement of foreig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re Activities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started out as 'Korean art K-ART' in September 2001 and was registered as a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on May 17, 2007. It has been ceaselessly placing efforts to offer new cultural experienc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to students of art in addition to active artists by plan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s for artists and conduct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jects, student art contests and basic art courses.

Our artist support projects includ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ndia Chennai Chamber Biennal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Official Members of Asian Art Academy, and private and group exhibitions abroad. Student support projects include training courses such as Korea-Japan art training, International Art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International Youth Arts Festival.

ARTIST SUPPORT

부산국제아트페어 (BIAF)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 한·중·일 3국을 오가는 동북아시아전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 11월 아시아오픈아트페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질적, 양적 측면에서 보다 성숙한 미술 행사를 개최해 부산과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지역을 아시아 미술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2008년 출범한 Busan International Art Fair가 회수로 15회,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5회에 걸쳐 개최된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그간 세계미술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아시아 미술계의 선두에 서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진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아트페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각도의 성장을 이뤄낸 아트페어로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언론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BIAF)

Starting with Northeast Asia Exhibition crossing over 3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since 2003 until May 2007, Asia Open Art Fair was successfully hosted in November 2007. Based on an ambitious goal of hosting a more mature art event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and to vitalize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embracing Busan, Gyeongsangnam-do and Ulsan as the new center of art market in Asia, Busan International Air Fair was launched in 2008 and is celebrating its 9th anniversary with the 14th event.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with its 14 times of history, has worked out incessant self-innovation and evolution to be the forerunner of Asia art trend. The recognition of the field as Korea's leading art fair happily cheered us, together with the biggest ever interest of the press.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현대미술의 신 주류라고 할 만한 인도 거장들과 앤디워홀, 백남준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며 국제적 기준을 국내 대중에 소개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전시에는 현대미술의 세계적 작가 '이케다 마나부' 등 해외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비중 있는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고, 2015 Busan International Art Fair에서는 잭슨 폴락, 피카소, 까미유 피사로,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세계적인 명화 작품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작가와 미술애호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미술 큰 장터' 입니다. 미술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미술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미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작가의 작품 활동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그동안 해외화상들이 내한하여 작품을 구매하는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편, 판매수익의 기부를 통해 단순한 미술전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를 통해 입장료 수익금과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최빈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공동주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술계와 미술을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아름다운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는 2014년 작품 판매수익금 중에서 금 30,000,000원을 2015년에는 금 10,000,000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ntroduced traditional world class artist such as Andy Warhol, Nam June Paik along with new contemporary Indian artists to public audience in an effort to stay in line with international flow. In 2014, world famous contemporary artist 'Ikeda Manabu' and other popular overseas artists' works were exhibited and in 2015, the great works of Jackson Pollock, Picasso, Camille Pissarro and Jean Michel Basquiat were invited.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s a 'new type of open market for Art' where the artists and collectors may sale and purchase the art pieces at reasonable price. We believe that the activation of art market is the key factor to widen the public base of art which is beneficial both for the artists and collectors. BIAF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fair of Asia successfully dealing Korean artworks to overseas market but also tries to be a part of 'living together' society.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donates a portion of its admission and sales profits by jointly hosting the event with Korean Committee for UNICEF. There is a special meaning in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mittee of UNICEF, an organization that helps children in poorest nations suffering from starvation and diseases. This implies that our audience who love the world of arts are working togethe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We donated 30,000,000KRW in 2014 and 10,000,000KRW in 2015.





인도 첸나이 챔버 비엔날레

2011년 7월에 열렸던 Korea Contemporary Spectrum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와 국립 라릿카라 아카데미와 인도한국문화원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시를 가지기로 협약을 맺고,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그리고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Chennai Chamber Biennale를 개최했습니다. 비엔날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130 여명이 각각 참여해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인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첸나이 챔버 비엔날레는 언젠가 뛰어난 인도 작품을 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비엔날레에서 한국 작가들은 한국의 정신세계를 담은 매력적인 예술혼으로 작품을 선보였으며, 양국 작가들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의 예술정신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더 큰 자리에서 만날 것을 희망했습니다.

Chennai Chamber Biennale

Based on the successful opening of Korea Contemporary Spectrum in July, 2011,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Lalit kala Academi and Indo-Korean cultural and Information Centre decided to cooperate for regular hosting of biennial exhibitions. Chennai Chamber Biennale was held during June 27 – July 06, 2013 and July 27 – Aug. 06, 2015 and 130 Korean representative artists participated showing the excellence of Korean Art.

This event is also meaningful since we can expect an exhibition of wonderful Indian art in Korea as a way of exchange. The participated Korean artists have shown attractive and spiritual Korean art to Indian audience while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dian artist sharing each other's inspiration.



기실 이러한 대규모의 한국-인도 미술교류는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의 지난 활동을 지켜본 인도 대작가들이 K-ART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입니다. 인도 소더비 경매 작가인 Rm. Palaniappan과 InKo Centre의 Rathi Jafer 원장은 한국-인도의 문화교류에 대한 열정으로 10년 가까이 활동해 온 K-ART에 신뢰를 보내며 다양한 전시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Rm. Palaniappan과 Alphonso Arul Doss를 비롯해 C. Douglas 등 인도에서 존경받는 미술가들을 한국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 다양한 작가들을 인도에 소개하여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힘을 보탬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 7월에는 한국 베트남 인도 작가들이 함께하는 제3회 Chennai Chamber Biennale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t would be possible to be said that such big program was possible only with the acknowledgement and recognition from Indian great artists who witnessed K-ART's sincerity and activities in past 10 years. Rm. Palaniappan, whose paintings are sold in India Sotheby's and Alphonso Arul Doss, whose painting shows the love and peace through dismantled time and space, participate in many of K-ART exhibitions with trust and passio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will promote India's most respected artists such as Rm. Palaniappan, Alphonso Arul Doss as well as C. Douglas and introduce Korean artists to India, as supporting the two country's friendship. The 3rd Chennai Chamber Biennale is planned in July, 2017 to which we kindly request your interest and love.



인코 센터 전시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2015년 인도 첸나이시 소재 인코 센터와 협업하여 인코 센터 갤러리에서 한국 현대 작가 5인 초대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현대 작가 기획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Korean Blue Chip Artists이라는 전시명으로 최성원, 최승일, 박태균, 황보경, 김영대 작가가 함께했고, 2016년 3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The blue Beyond이라는 전시명으로 주태석, 이강화, 정영모, 윤형선, 이희돈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인도한국문화원 인코 센터 갤러리 전시는 한국의 우수하고 인기 있는 작가들을 인도에 소개하고 그 작품을 판매를 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우수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허심탄화한 전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K-ART 국제 교류협회는 인코 센터와 양질의 콘텐츠로 소통하며 문화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nKo Centre Exhibitio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nd InKo Centre in Chennai, India decided to hold continuous exhibitions of "Korean 5 Artists" from 2015 onward and so far 2 exhibitions were held accordingly.

In September 2015, Seongwon Choi, Seung-il Choi, Taegyeon Park, Bogyung Hwang and Youngdae Kim participated under the title of "Korean Blue Chip Artists" and in March 2016, Taeseok Joo, Ganghwa Lee, Youngmo Jeong, Hyungseon Yoon and Heedon Lee participated under the title of "The Blue Beyond".

The exhibitions in InKo Centre is more meaningful in the way of sharing both countries' nice culture in specific way and also promoting a liberal exhibition environment through which the exhibitions does not remain as a mere display and sale of paintings. K-ART will do the best to work as a cultural bridge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quality contents together with InKo Centre as always.





첸나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미술 바자 展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인도가 100여 년 만의 사상 최악의 폭우로 어려움을 겪자 인도 재난 돕기 모금 전시를 기획해 인도 이재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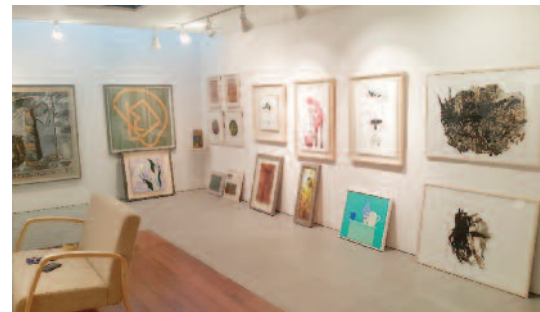
이 전시는 K-ART 자체 보유 작품 희사(喜捨)와 바자전에 동참한 아시아 미술원 정회원과 한국작가들이 기부한 작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 전액을 인도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이 바자회 형식을 차용한 전시는 극히 드문 형태의 기부 기획 미술전으로,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도 이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며, 이에 지역 유력 신문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한국 작가뿐만 아니라 인도 정상급 작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의 판매금과 수익금 전액이 인도 수해 지원 금액으로 인도 첸나이 시에 전달되는 점을 강조하며, “사랑은 미술을 타고 온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K-ART 국제교류협회의 공익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Charity Bazaar Art Exhibition for Chennai Flood Relief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held a charity bazaar exhibition of artworks to support the flood victims of Chennai when suffered from the heaviest rain in 100 years.

This exhibition was designed to sale the Indian paintings to Korean collectors those K-Art has been collected and received from Korean artist including the members of Asia Art Academy then to donate the profit to Indian public service institution. Such pro-bono type of exhibition, which is rare in exhibition business, was to maximize the donation result for their desperate need of relief in the worst flood case that has overwhelmed the city and was praised by one of the major regional press. In their article with the title of “Love comes with Art”, they underlined that all profit of the exhibition in which India’s top artists as well as Korean artists are participating, will be delivered to Chennai’s flood relief support and highly emphasized K-Art’s public welfare activities.





한국 베트남 미술 교류전 with POSCO E&C

한국 베트남 미술교류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Art and Photograph Exhibition Center에서 POSCO E&C의 특별후원 아래 개최됐으며, Asia Art Academy에서 선정한 79명의 작가와 베트남 하노이 미술협회에서 선정한 23명의 작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전시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POSCO E&C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한인회의 협력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국제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K-POP이나 드라마 쪽에 한정되어 소개됐던 한국의 문화를 이번 전시를 통해 풍부하게 보여줬다는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Korea Vietnam Art Exchange Exhibition

Under special sponsorship of POSCO E&C, an exhibition was held from October 1 to 7, 2014 at Art and Photograph Exhibition Center located in Hanoi, Vietnam with 79 artists selected by Asia Art Academy and 23 artists selected by Hanoi Fine Arts Association.

This event was more meaningful as it was made possible through collaboration of POSCO E&C in Vietnam,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tnam, and Korean Association in Hanoi. A true international exchange is in mutual understanding of cultures, but the focus of Korean culture has been limited to K-POP and drama. We were able to present diverse cultures of Korea through this exhibition.



기타 주요 전시 및 작가지원사업

Other Important Exhibition and Artist Supports

K&K 멤버십 갤러리 전시

K&K Membership Gallery에서는 Alphonso Arul Doss, Rm. Palaniappan 등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아트고객 여러분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설전시 및 기획 전시를 개최해왔습니다. 그간 K&K Membership Gallery는 '미리보는 아트페어'라는 사전전시를 통하여 그 해 Busan International Art Fair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소개하여 본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리보는 아트페어'는 미술애호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K&K Membership Gallery Exhibition

K&K Membership gallery has been hosted regular and special exhibitions of master artists such as Alphonso Arul Doss, Rm. Palaniappan, etc to meet the art customer's cultural desire while promoting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with the prior exhibition named "Art Fair Preview". The "Art Fair Preview" shall prepare exhibitions with diverse and profound contents to satisfy the art lovers.



지난 기획전시 및 아트페어

동북아시아전

동북아시아전은 2003년 봄 부산 KBS 홀에서 신춘기획 동북아시아전을 시작으로 2007년 봄 사가현립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아세아화전을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총 10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고의 작가 1,893명의 작가들이 상호 교류를 하며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닌 동북아시아 미술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전은 2007년 아시아 오픈 아트페어가 열리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현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Busan International Art Fair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Previous Special Exhibitions and Art Fairs

Northeast Asia Exhibition

Spring Special Northeast Asia Exhibition was held at Busan KBS Hall in the spring of 2003, and International Asian Art Exhibition was held as the last event at Saga-ken Museum in the spring of 2007. It was a festival for artists of Northeast Asia instead of a simple art exhibition where 1,893 artists of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Taiwan, Hong Kong and Mongolia mutually exchanged their works crossing over Korea, China and Japan for 10 occasions. Northeast Asia Exhibition laid the foundation for Asia Open Art Fair in 2007, which set the cornerstone for successful hosting of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동북아시아아트페어 (NAAF)

2007년과 2008년 2월 서일본컨벤션센터 신관(ANNEX)에서 열린 NAAF 2007은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여 구축해 두었던 대외적 이미지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동북아시아 아트 페어는 대한민국 대표작가 200여명의 작품 3,000여점을 컨테이너에 실어 직접 운송하여 집단 부스전시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AAF 2010「全日 Art Fair」는 지난 나프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동경의 최첨단 전시관인 '선샤인 시티' (Sunshine Cit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AAF 2010「全日 Art Fair」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국제미술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시를 개최했다는 측면에서 국제 아트페어로의 진보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Northeast Asia Art Fair (NAAF)

Northeast Asia Art Fair, which was held in 2007 and 2008 February in West Japan General Exhibition Center Annex, was remarkable exhibition that fortified K-ART's status and image as promising international art association. Korea's representative 200 artist's 3,000

pieces of works were transported in containers and made the exhibition be huge and successful, confirming K-ART's credibility and capability.

NAAF 2010 [All Japan Art Fair] was held in Tokyo's cutting edge exhibition center, Sunshine City. It can be said that NAAF 2010 showed the possibility to become an international art fair with its character of new paradigm applied to international art environment, beyond the conventional frame.



중국 Ningbo Museum of Art 초대전

중국 Ningbo Museum 초대전은 Ningbo Museum 개관 2주년 기념전을 겸하여 저희 K-ART 국제교류협회와 Ningbo Museum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한·중 미술교류전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Ningbo Museum 초대 "한중유화요청전"이라는 중국식 전시명으로 2007년 10월 Ningbo Museum에서 개최됐으며, 제1전시실에서는 한국 NAAF 추천작가 100명과 중국 Ningbo Museum이 중국 전역에서 심

의 초대된 작가 120명의 작품이 100호 기준으로 출품되어 현대 한중 작가들의 대형 작품을 한자리에서 동시에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한국작가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은 중국 전역에서 중요작가들을 엄선하여 장금 Ningbo Museum 부관장, 곽양평 태봉시 서법가회부주석, 고이신 계구국제예술가회관 관장 등 중국의 유력 미술계 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제2전시실에서는 한국판화제라는 주제로 홍익판화가협회의 판화작품 65점이 같은 시간 동시에 전시돼 중국 미술계 인사들부터 일반 관객에 이르기까지 한국 판화가들의 현대적 기법을 다각도로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China Ningbo Museum of Art Invitational Exhibition

China Ningbo Museum of Art Invitational Exhibition was Korea-China art exchange for celebration of the museum's 2nd anniversary of opening, co-hosted together with K-Art. This exhibition was held in 2007 October under the name of "Sino & Korea Oil Painting Art Exhibition" with 100 Korea NAAF recommended artists and 120 China artists invited by the museum from every corner of china, with their

2m2 or bigger sized paintings, offering a chance to enjoy Korea and China's representative contemporary arts in one place with attendance of China's major art figures from all over the country, especially Zhang Jian Vice-director of Ningbo Museum of Art, , Guo Yang-ping Vice-chairman of Taifeng Calligrapher Association, Gao Er-yi Director of Xikou International Artists Center, etc.

In the exhibition room no. 2, 65 pieces of printing arts of Hongik Printer's Association was displayed, with the title of "Korea Printing Arts" which made possible to introduce contemporary printing technique not only to the Chinese artists but also the general audience.



한중 당대 미술가 초대전

한중 당대 미술가 초대전은 2009년 11월 중국 안휘성 박물관과 황산태평국제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현대 미술 교류전이었습니다. 한국작가의 서양

화와 판화작품 그리고 중국 안휘성 미술 가협회 소속 중국작가의 동양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작가들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이 전시는 참가했던 한국작가들에게 2009년 당시 세계미술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중국 미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시와 더불어 K-ART 국제교류협회는 한중 합작 전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며, 또 한 번 민간단체의 수준에서 이루기 어려운 문화교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치러지며 문화의 힘으로 양국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Sugye China-Korea Interactive Contemporary Artist Exhibition

Korea-China Contemporary Art Invitational Exhibition was an art exchange event hosted together with Anhui Provincial Museum in 2009 November at Convention hall of Taiping International Hotel Huangshan. Korean artists' oil paintings and printings and Chinese artists' oriental painting and sculpture were displayed in one place, offering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current flow of Chinese art which was emerging as world art's major player at

the time. Together with exhibitions, K-ART was able to write a MOU for Korea-China co-hosting exhibitions as a part of event for China's national foundation 60th anniversary celebration, which is in general rarely accessible for civil organizations, as developing sincer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린 한국 현대 스펙트럼 (Korea Contemporary Spectrum)은 LALIT KALA AKADEMI (인도 정부 예술 부처 기관), 인도한국문화원(Inko)과 한국의 사단법인 K-ART 국제 교류협회가 공동주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가 초대하는 최초의 직접적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인도의 현대미술에 있어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미술전람회이었으며, 인도,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학술적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Korea Contemporary Spectrum은 국립 라릿카라 아카데미 전시관에서 한국작가 147명의 대형작품을 초청한 대규모 한국 현대 미술전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의 작가들이 21세기에 진입한 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인도의 시각으로 현대한국미술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의 방향도 설계해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 작가들은 한국-인도 미술의 미래에 관해 'Theory, concepts & encounters : Myths & new aesthetics of New Media Art' 라는 주제로 큰 토론의 장을 열어 양국 미술 발전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Korea Contemporary Spectrum

Korea Contemporary Spectrum held between July 28 and August 4, 2011 is an unprecedented large-scale project jointly hosted by LALIT KALA AKADEMI (the Indian government), Inko Centre and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s the very first and largest direct exchange of contemporary art between Korea and India, this event created many academic topics. We decided to offer a seminar on contemporary art of Korea along with exhibition.

Korea Contemporary Spectrum exhibited large-scale works by 147 Korean artists at LALIT KALA AKADEMI Exhibition Hall. This exhibition was a chance to present values pursued by Korean artists in the 21st century, shed new light on contemporary Korean art, and foresee the future. Also, a grand stage of discussion on 'Theory, concepts & encounters: Myths & new aesthetics of New Media Art' was held for the future of arts in Korea and India.



부산국제아트페어 선정작가 초대 개인전

부산국제아트페어 선정작가 초대 개인전은 지난 부산국제아트페어의 수익금을 참가했던 작가에게 환원하여 창작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는 공익적인 의미에서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K-ART 국제교류협회에서 부산국제아트페어 초대 작가들 중 인기 작가를 선정한 후 초대 개인전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2011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윤인수, 김충진, 노

충현, 이희정 작가가 함께 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Designated Artist Invitational Private Exhibition

This exhibition tries to support sustainable art activity as returning the profit of BIAF to the participated artists, in a sense of public welfare.

The invited artists are designated among the artists with popularity who participated in previous BIAF, and from August to October in 2011, Insoo Yoon, Choongjin Kim, Choonghyun Roh and Heejung Lee's works were displayed.



STUDENT SUPPORT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사단법인 K-ART 국제교류협회는 미래의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해외 미술학도들과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미술의 언어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창작 의욕을 고취할 것을 지향하며, 미술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예술 안목을 길러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술학도들에게 예술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2002년 시작된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은 국내외에서 미술교육과 미술학도의 국제교류의 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학생미술문화의 축제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International Teenager Design & Art Contest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is holding various programs to develop new generation to lead the future of Korean Art by intriguing intensive competition with overseas art students and providing the opportunities to build up international friendship with the language of Art. We hope these trainings to be able to motivate their creativity and make them experience international art field.

International Teenager Design & Art Contest hosted by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started in 2002 is recogniz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verseas countries for its fruitful result in international exchange of art education. K-ART will develop this event to be a worldwide cultural festival where the student could experience the on-site cultural education of various countries.



특히 15회를 맞이하는 2016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 MBC, InKo Centre, LALIT KALA AKADEMI, Dakshina Chitra, 한일민간교류(사가)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전 세계 미술학도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전에는 소묘작품부터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순수회화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지구촌(환경, 인권, 아동구호, 평화, 자유, 화해 등)이라는 주제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의 당선작들은 진취적인 발상과 창의력을 내포한 동시에 그 완성도가 뛰어나 참여한 각국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미술학도의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또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2016년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은 2016년 4월 30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모전 참가자 전원에게는 2016 국제 청소년예술축제와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한일미술연수강좌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가 활동 시 Busan International Art Fair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Especially in its 15th year in 2016, this contest will be sponsored by Korean Committee for UNICEF, Busan MBC, Inko Centre, Lalit Kala Academi, Dakshina Chitra, Korea-Japan Art Nongovernmental Exchange Association (SAGA), encouraging and cheering the participants more than ever.

Diverse genres of works are accepted ranging from drawings to installations and except for pure paintings, the topic of event is global village (environment, human rights, save the children, peace, freedom, reconciliation, etc.). Previous years' selected artworks were recognized for its high level of innovative, creative and artistic ideas as inspiring the participants and motivating each other.

Students can participate for 2016 International Teenager Design & Art Contest till April 30, 2016 and all participants may join Japan-Korea Art Training and 2016 International Juvenile Arts Festival which can be a mile stone for student's dream for future. Also those participants may be offered for a chance to join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when graduated to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국제청소년예술축제

국제청소년예술축제는 일본과 인도 등 매년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에서 선발된 국제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는 과정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하회마을, 군자마을, 용수사 템플스테이 등을 소개하며 자라나는 국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려 왔습니다.

국제청소년예술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한국 학생들과 국제학생들이 미술학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열정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이며,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불어 국제청소년예술축제 실기 대회에서 수채화, 연필화, 디자인, 동양화, 애니메이션 분야 중에서 선택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예술축제에서는 또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지는 등 학생, 교원 및 학부모와 함께 미술교육·미술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대회장소를 부산으로 정하여 더욱 알찬 문화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is a program that the students from Japan and India awarded at International Art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learn the essential part of Korean tradition and history as visiting Andong, Korea, the capital of spiritual culture of Korea as well as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Dosan Seowon, Hahoe Village, Gunja Village, Yongsoosa Temple Stay, etc.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open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and foreign students to share their passion and friendship as art students. Also the participating students may see each other's style and strength as competing in the on-site painting contest with their chosen type among water color, pencil drawing, design, oriental painting and animation.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also holds various kinds of research to develop and establish a proper model of art education and therapy, together with th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for example holding a symposium regarding the





청소년 국제미술교육연수

한일미술교육연수 in SAGA

올해로 28년째를 맞는 2016 한일미술연수강좌는 일본 사가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한일민간교류(사가)와 협의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 전역에서 선발되어 참가하는 데성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과 저희 공모전 수상학생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실기 수업을 받고 강평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가현립미술관, 아리타도자박물관 등 일본 현지의 미술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 미대 합격 작품 슬라이드 교육도 가집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 연수에서 일본학생들의 미술수업과 평가방법을 체험하고 일본친구들도 사귀며 재능 있는 작가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Korea-Japan art training sessions in SAGA

In the year of 2015 Japan-Korea art training sessions is a program that has been around 27 years. It is run by 'Japan Korea Art nongovernmental exchange association(Saga)', a Japanese high school teacher community in Saga, Japan, and during this program the contest awarders of our program meet with the awarders of Japan's national Design Concours and do a camp training session together learning art and evaluating meetings.

This program gives an an opportunity to receive the local art education done by Saga Art museum and Arita Ceramics Nuseum and slide education viewing artworks of previous students who applied and got in. We can experience the Japanese style of art classes and evaluation processes and make Japanese friends to enlarge the scale of our future desires.

일본대학미술기초연수

일본 미술대학 미술 기초연수 과정은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대학교 진학 전 대학 기자재를 가지고 교수님들로부터 미리 디자인 관련, 애니메이션 관련, 기초조형 관련 수업을 들어봄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설정 및 유학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풀어 볼 수 있는 연수였습니다.

전 과정 수료한 학생들은 해당 대학 학장으로부터 수료증을 수여 받았으며 이는 각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apanese College Art Education Training

The elementary art training program at Yokohama college Art and Design provide benefits to the contest winners to take courses related to design, animation, and elementary plastic art from the professors with college tools and materials before advancing to colleges so as to resolve the curiosity of the students regarding the aptitude and career path, and studying abroad.

After completion the entire program, the students were awarded Certificate of Complete from the dean of each college, which were of great help for them to advance to col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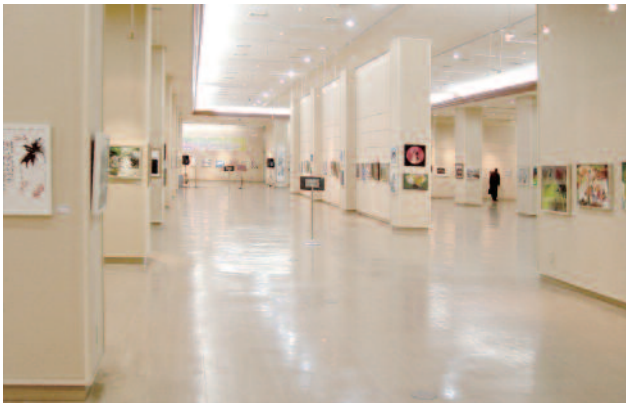
한중미술교육연수

한중미술교육연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제 중고등 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북경에서 진행한 미술 교육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위주의 연수가 아닌 전 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국제소년아동예술전시대 경색, 북경올림픽유치기념 국제소년아동미술대회 등 국제대회 참여 권한을 포함, 중국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Korea-China Art Education Training

Korea-China Art Education Training was a painting class program for the awarded ones of International Art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ring 3 years from 2004 till 2006. This program offered not only some field trips but also the chanc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International Youth and Children Arts Exhibition and International Youth and Children Art Competition in celebration of Beijing Olympic Games, etc as leading the students who were hoping to learn in China to various opportunities.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새 지평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will continue to open a new horizon

발행처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87번길 23(전포동)
Tel. 051)803-8830 Fax. 051)802-8820 www.k-art.co.kr

발행인 허 숙

디자인 주식회사 **코아앤**

©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본 K-ART REPORT 저작권은 사단법인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가없이는 출판 또는 사진 사용, 영상제작 등 일체의 복제 행위가 금지됩니다.